

2017년 산업체 대상
설문조사 보고서

2018.1.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차 례

차 례	i
그림 차례	ii
표 차례	ii
제 1 장 서론	1
1.1 조사개요	1
1.1.1 조사목적	1
1.1.2 조사개요	1
1.1.3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1
1.2 기초통계	1
1.2.1 응답자 특징	1
1.2.2 기초 통계	3
제 2 장 교육 목표 및 이미지 평가	5
2.1 교육 목표	5
2.2 대외 이미지 및 발전 가능성	6
제 3 장 핵심역량	9
3.1 핵심역량 측정	9
3.2 숙명인의 역량수준	10
3.2.1 부분별 역량 평가 차이	11
3.3 역량 평가와 필요 역량	12

그림 차례

2.1	산업체의 4대 교육목표 평가	6
2.2	대학 이미지 및 발전 가능성	7
3.1	산업체가 본 숙명인 역량	10
3.2	운영형태별 역량 평가	11
3.3	탁월역량과 필요역량	13

표 차례

1.1	조사 대상별 빈도수	2
1.2	산업체 평가	3
1.3	재학생 탁월 및 부족 역량	4
2.1	4대 교육 목표 중요도	5
2.2	산업체가 본 숙대 이미지 및 발전 가능성	6
3.1	재학생 탁월 및 부족 역량	9
3.2	사업장 운영형태 역량 평가	12

요약

조사개요

조사일시: 2017.11.13-12.4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대상: IPP 현장실습 관계자 & 산학협력
체 관계자 59명(응답률 26.9 %)

조사내용: 4대 교육목표, 학교 대외 이미지
및 발전가능성, 재학생 핵심역량

히 발전 가능성과 인성함양 대학이라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4.22와 4.17).

대외이미지	동의	평가
주위 평판 우수 대학	89.9 %	4.05
학생 인성 함양 대학	84.7 %	4.17
산업체 요구부응 대학	62.7 %	3.80
신입사원 뽑고 싶은 대학	83.0 %	4.14
발전가능 대학	86.5 %	4.22

교육목표

4대 교육목표 중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직업인 육성과 품격과 교양을 갖춘 문화인 양성이라는 목표에 대해 산업체는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 민주시민 양성에 대해서는 기관이 필요로는 인재 및 업무능력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했다. 특히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는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 양성과 같은 보편적 민주시민 양성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구시대적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외 이미지 및 발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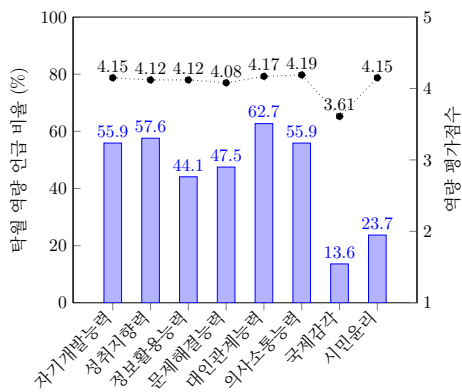
산업체의 본 우리 대학의 이미지와 발전 가능성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

주위 평판 우수대학(4.05)과 산업체 요구부응 대학(3.80)에 대해서는 동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조사가 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상대적으로 평가가 긍정적임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 문항에 대한 평가는 점수 인플레이가 줄어드는데 산업체요구 부응 문항의 점수는 이를 반영한 결과다.

핵심역량

산업체를 대상으로 재학생의 핵심역량을 평가하도록 했다.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했고, 관심도가 낮은 시민윤리 같은 학문을 제외하면 상당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숙명대 재학생은 대인관계능력과 성취지향력, 자기개발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활용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은 중간 정도의 능력을 보였고, 국제감각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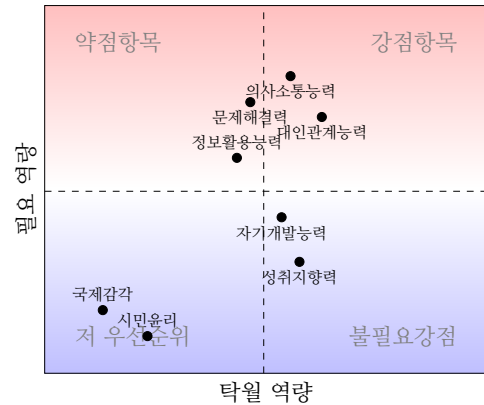


시민윤리 항목의 경우 조사방식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개별역량 평가 방식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이고, 다중선택 방식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관심도(중요도)가 일부 반영된 측면이 있다.

핵심역량-필요역량 분석

IPA분석을 원용해 졸업생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역량과 산업체가 평가한 핵심역량을 활용해 전략을 분석하였다. 만족도 대신에 타월역량을 사용했고, 중요도 항목 대신에 필요

역량을 사용했다.



그 결과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은 강점항목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역량으로 분류됐고, 문제해결력과 정보활용능력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약점항목으로 나타났다. 자기 개발능력과 성취지향력은 뛰어나기는 하지만 사회진출시 그렇게 필요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강점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감각과 시민윤리는 타월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중요한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발전과제로 두어도 될 역량으로 나타났다.

제 1 장

서론

1.1 조사개요

1.1.1 조사목적

- 산업계 요구 수요를 파악하며 우리대학 교육의 질전 발전 및 개선 도모.
- 재학생 핵심역량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1.1.2 조사개요

- 조사일시: 2017년 11월 23일 - 2017년 12월 4일 (12일간)
- 조사방법: 구조된 설문지를 사용한 온라인 조사
- 조사대상: IPP 현장실습 관계자 189명 (189개 업체)와 산학협의회 27명 (27개 산학협의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59명이 설문에 참여함(응답률 26.9 %).

1.1.3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우리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평가 (4문항)과 본교의 대외이미지 및 발전가능성 평가 (5문항), 재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평가 (8개 핵심역량에 대한 평가, 탁월한 역량, 부족한 역량 조사) 그리고 본교의 전공 및 교양 교과과정과 학생지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통계처리를 위해 설문 참여 산업체의 업종과 운영형태, 소재지, 기관규모에 대해 조사하였다.

1.2 기초통계

1.2.1 응답자 특징

조사에 응한 산업체 중 서비스업이 50.8 %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5.3 %), 정보통신업 (13.6 %), 기술서비스업(8.5 %), 유통업(5.1 %), 교육업(5.1 %), 금융업(1.7 %) 순이었다.

졸업생조사 결과 취업 업종 결과 서비스업이 41.6 %, 정보통신업 13.7 %, 제조업 10.9 %, 유통업 10.5 % 였던 점을 고려하면 업종별로 표집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업에 취업한 졸업생이 9 % 가량되는 데, 조사에 참여한 산업체 중에 금융업 분야 1.7 %에 그쳐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운영형태별로는 민간기업이 71.2 %로 비중이 가장 컸고, 공공기관과 민간협회 및 재단이 11.9 %와 10.2 %로 그 뒤를 이었다. 사단법인은 6.8 %였다. 졸업생 취업 사업장은 운영형태도 민간기업이 70.1 %였고, 공공기관이 13.8 %를 차지하는 등 응답자 분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응답 산업체는 서울에 91.5 % 소재하고 있고, 경인지역에 5.1 % 있다. 그리고 충청과 영남에 소재한 산업체가 1.7 % 였다. 졸업생 취업지역도 수도권이 90.1 % 인 점을 고려하면 산업체 소재지도 적절히 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체 규모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39 %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30.5 %, 200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이 13.6 %, 100인에서 200인 미만이 11.9 % 였다. 50인에서 100미만 사업장은 5.1 %로 비중이 가장 작았다. 300인 이상이 43 %, 50인 미만이 29.6 %를 차지한 졸업생 조사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표 1.1〉 조사 대상별 빈도수

분류		빈도	비율
업종	제조업	9	15.3 %
	금융업	1	1.7 %
	유통업	3	5.1 %
	정보통신업	8	13.6 %
	서비스업	30	50.8 %
	교육업	3	5.1 %
	기술서비스업	5	8.5 %
운영형태	공공기관	7	11.9 %
	민간기업	42	71.2 %
	민간협회 및 재단	6	10.2 %
	사단법인	4	6.8 %
소재지	서울	54	91.5 %
	인천/경기도	3	5.1 %
	대전/ 세종/충청도	1	1.7 %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	1	1.7 %
규모	50미만	23	39 %
	50 - 100미만	3	5.1 %
다음쪽에 계속			

분류	빈도	비율
100 - 200미만	7	11.9 %
200 - 300미만	8	13.6 %
300 이상	18	30.5 %

1.2.2 기초 통계

〈표 1.2〉 산업체 평가

구분	- -	-	0	+	++	지수
교육목표의 중요성 (n=59, %)						
품격과 교양을 갖춘 문화인 양성	-	-	10.2	37.3	52.5	4.42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직업인 육성	-	-	-	28.8	71.2	4.71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민주시민 양성	1.7	6.8	37.3	30.5	23.7	3.68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 갈 여성지도자 배출	1.7	1.7	25.4	40.7	30.5	3.97

숙명대학의 대외 이미지 및 발전 가능성

주위의 평판이 우수한 대학	-	-	10.2	74.6	15.3	4.05
학생의 인성과 태도 함양에 노력하는 대학	-	-	15.3	52.5	32.2	4.17
교육과정이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	-	3.4	33.9	42.4	20.3	3.80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	-	16.9	52.5	30.5	4.14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학	-	1.7	11.9	49.2	37.3	4.22

재학생 역량 평가

자기개발능력	-	-	10.2	64.4	25.4	4.15
성취지향력	-	-	22.0	44.1	33.9	4.12
정보활용능력	-	-	18.6	50.8	30.5	4.12
문제해결력	-	-	18.6	54.2	27.1	4.08
대인관계능력	-	3.4	13.6	45.8	37.3	4.17
의사소통능력	-	1.7	13.6	49.2	35.6	4.19
시민윤리	-	-	20.3	44.1	35.6	4.15
국제감각	-	8.5	39.0	35.6	16.9	3.61

note: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0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표 1.3〉 재학생 탁월 및 부족 역량

핵심 역량	탁월한 역량		부족한 역량	
	%	빈도	%	빈도
자기개발 능력	54.2 %	32	8.5 %	5
성취 지향력	57.6 %	34	20.3 %	12
정보활용 능력	44.1 %	26	11.9 %	7
문제 해결력	47.5 %	28	20.3 %	12
대인관계 능력	62.7 %	37	18.6 %	11
의사소통 능력	55.9 %	33	11.9 %	7
시민 윤리	23.7 %	14	1.7 %	1
국제 감각	13.6 %	8	39.0 %	23

제 2 장

교육 목표 및 이미지 평가

2.1 교육 목표

우리 대학은 국가와 민족,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지도자 배출이라는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창의, 자주, 봉사의 정신을 가진 전문인을 육성하겠다는 교육 목적 아래 4대 교육 목표로 품격과 교양을 갖춘 문화인을 양성과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직업인을 육성,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민주시민을 양성 그리고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 갈 여성지도자를 배출을 제시하고 있다.

〈표 2.1〉 4대 교육 목표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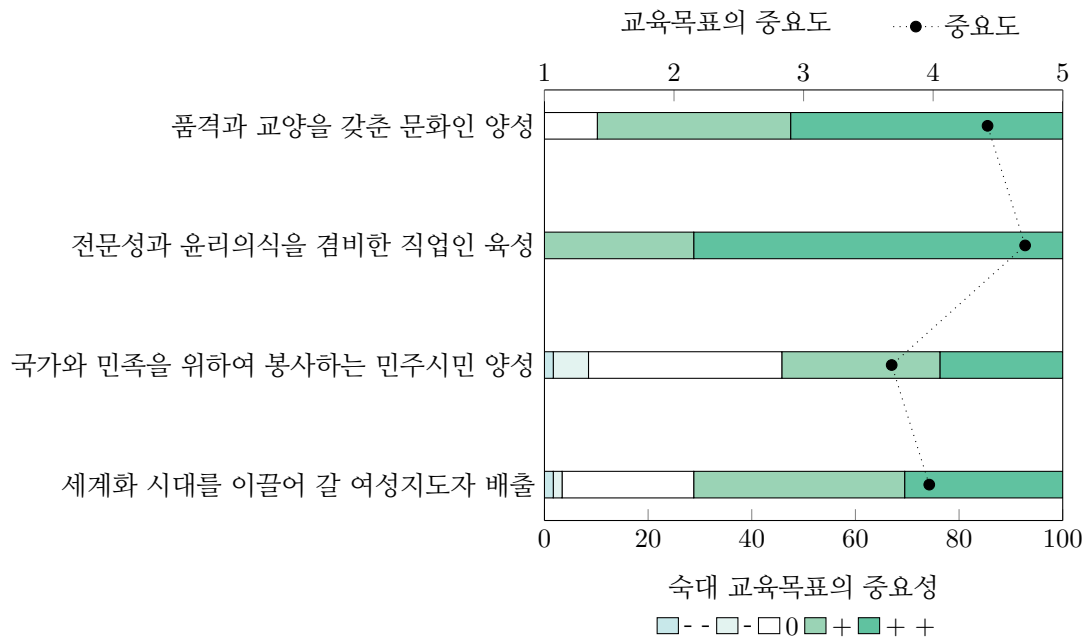
4대 목표	부동의	유보	동의	중요도
문화인 양성	-	10.2 %	89.8 %	4.42
직업인 육성	-	-	100 %	4.71
민주시민 양성	8.5 %	37.3 %	54.2 %	3.68
여성지도자 배출	3.4 %	25.4 %	71.2 %	3.97

재학생들을 잠재적으로 채용할 산업체에서는 이 교육 목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조사하였다. 설문에서는 해당 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 및 업무능력" 측면에서 4대 교육 목표의 중요성을 물었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직업인 육성 항목에는 100 %가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품격과 교양을 갖춘 문화인 양성에 대해서도 89.8 % 긍정적 의견(동의+매우 동의)을 피력했고, 10.2 %는 유보적 입장(보통)을 나타냈다.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 갈 여성지도자 배출에 대해서는 71.2 %가 동의했고, 25.4 %가 중립적 입장을 취했고, 3.4 %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민주시민 양성에 대해서는 54.2 %가 동의하기는 했지만, 유보적 입장이 37.3 %, 부정적 입장이 8.5 %에 달해 조사대상 산업체는 다른 목표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산업체가 필요로하는 인재라는 측면에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직업인 육성에 대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다. 여성지도자 배출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도 목표 자체가 잘못 설정됐다기보다 필요로하는 인재라는 측면에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정적인 평

〈그림 2.1〉 산업체의 4대 교육목표 평가



가가 늘어났을 수 있다. 다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는 산업체 입장에서는 여성리더와 마찬가지로 "민주시민"이 꼭 필요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 권위주의 시대나 산업화 시대에 더 어울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시민에 대해 거부감이 들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체의 특징(업종, 운영형태, 소재지, 규모)에 따른 교육목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2.2 대외 이미지 및 발전 가능성

대외 이미지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평판 우수대학과 인성함양 대학,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으로 나누어 동의 여부를 조사 하였다.

〈표 2.2〉 산업체가 본 숙대 이미지 및 발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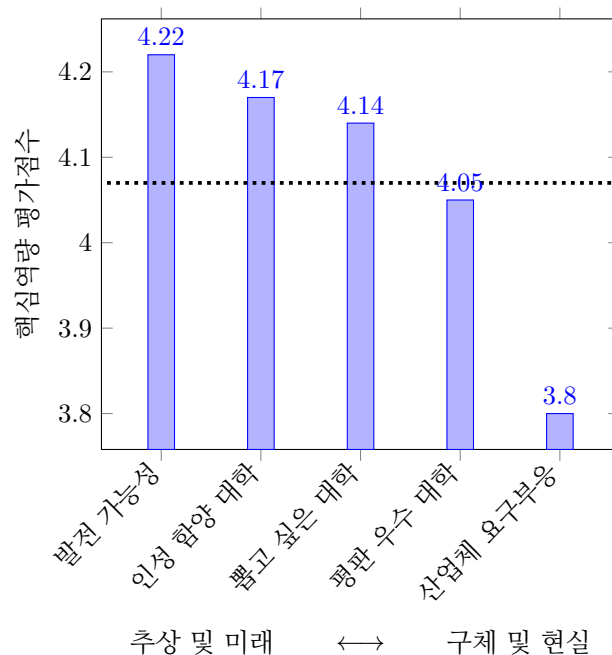
이미지	부동의	유보	동의	이미지 점수
평판 우수 대학	-	10.2 %	89.9 %	4.05
인성 함양 대학	-	15.3 %	84.7 %	4.17
산업체 요구부응 대학	3.4 %	33.9 %	62.7 %	3.80
뽑고 싶은 대학	-	16.9 %	83.0 %	4.14
발전가능 대학	1.7 %	11.9 %	86.5 %	4.22

조사 결과 우리학교가 평판 우수 대학이라는 것에 대해 89.9 %가 동의하고 10.2 %만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학생 인성 함양 대학이라는데 84.7 %가 동의 했고, 15.3 %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인가에 대해서 83 %가 동의했고, 16.9 %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도 86.5 %가 동의했고, 11.9 %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고, 1개 산업체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우리학교의 산업체 요구 부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수준이 낮아 62.7 %가 동의 했고, 33.9 %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2개 산업체(3.4 %)는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산업체 관계자의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학교가 대외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노력하는 대학이며,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이다. 다만 주위의 대학 평판 우수한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부족한 수준이고, 대학의 산업체 요구부응이라는 측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2〉 대학 이미지 및 발전 가능성



하지만 조사 문항의 추상-구체도에 따라 이미지 점수차가 나는 측면도 있다. 추상적이거나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해주고 있고, 현재의 문제나 구체적인 질문에는 평가 점수가 내려가는 경향이 나타난다. 대학의 발전가능성과 인성 함양대학과 같이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는 추상적인 질문에는 응답자가 IPP 산업체와 산학협력체라는 점에서 덕담수준의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현재 대학의 주위 평판이나, 숙대의 교육과정이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가 같은 현재의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숙대 이미지 및 발전 가능성 문항의 결과는 높은 점수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산업체 요구부응 대학같은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주목해야 한다.

향후 조사에서는 대학 이미지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 대상의 확대와 문항 추가가 필요하다. 산업체 조사에 참여하는 대상이 학교와 직간접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IPP 산업체와 산학협력체로 한정되어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다른 산업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 점수의 객관적 활용을 위해 설문문항에 경쟁대학이나 타겟 대학의 이미지도 함께 조사해 이미지 점수를 객관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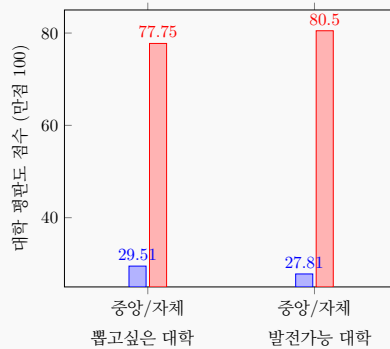


중앙일보 대학 평판도 조사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표 중 대학 평판도가 포함됐으며, 이를 위해 60개 대학의 평판도를 조사한 바 있다. 우리 조사와 중앙일보 조사가 같은 항목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 있어, 이 결과를 활용하면 숙명여대의 평판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일보 평판도 조사는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과 '입학 추천하고 싶은 대학', '향후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그리고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가 큰 대학'에 대해 기업인사 담당자 550명과 고교교사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결과 점수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 항목에 따라 5점, 1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우리 조사와 공통된 항목은 '뽑고싶은 대학'과 '발전가능 대학'으로 2017년 숙명여대는 2.95 점(39위, 만점 10)과 1.39점(38위, 만점 5)을 기록했다. 비교 가능하게 두 조사 모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뽑고 싶은 대학' 항목에 중앙일보 조사는 29.51, 우리 조사는 77.75이 되고, '발전 가능 대학'은 각각 27.81과 80.5가 된다.



중앙일보 조사는 서열화를 위해 표준화한 점수라 우리조사와 일대일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 조사대상의 온정적 태도 가능성과 대학간 경쟁속에서 평판을 해석한다면 우리 조사의 높은 점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핵심역량

3.1 핵심역량 측정

우리학교 재학생이 가진 핵심역량에 대해서는 3가지 방식으로 측정을 했다. 하나는 8가지 핵심역량에 대해 뛰어나지 않다와 뛰어나다 사이의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해 역량 점수를 1점에서 5점사이 점수로 구하도록 했다. 두번째 방식은 8개 핵심역량 중 숙명인이 탁월한 역량을 다중 선택으로 고르도록 해, 개별 역량의 선택 비율을 활용해 역량 점수를 구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역량을 다중선택방식으로 고르게 해 그 비율을 활용해 개별역량의 정도를 평가했다.

〈표 3.1〉 재학생 탁월 및 부족 역량

핵심역량	탁월 역량	부족 역량	평가 점수
대인관계능력	62.7 %	18.6 %	4.17
성취지향력	57.6 %	20.3 %	4.12
의사소통능력	55.9 %	11.9 %	4.19
자기개발능력	54.2 %	8.5 %	4.15
문제해결력	47.5 %	20.3 %	4.08
정보활용능력	44.1 %	11.9 %	4.12
국제감각	13.6 %	39.0 %	3.61
시민윤리	23.7 %	1.7 %	4.15

세가지 측정법은 재학생들의 역량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결과는 일부 측정법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일부 측정법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탁월 역량 비율과 평가점수, 그리고 부족한 역량과 평가 점수간에는 상관관계 계수(r)가 각각 0.74와 -0.84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그러나 단순한 역관계를 보일 것 같은 탁월 역량과 부족 역량 사이의 관계는 상관관계 계수(r) -0.31을 보여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선택 방식은 탁월이나 부족역량에 해당 역량의 중요도 평가가가 가미된 측면이 있다. 탁월 및 부족 역량에 언급한 비율이 낮은 (관심도 또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시민윤리 항목을 제외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탁월역량 및 부족 역량 언급 비율과 평가 점수간

상관관계 계수가 0.95와 -0.91로 매우 높게 나왔다. 탁월 역량과 부족 역량 비율간의 상관관계 계수도 -0.78를 상당한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시민윤리 항목만 별도로 고려해서 본다면 어느 측정법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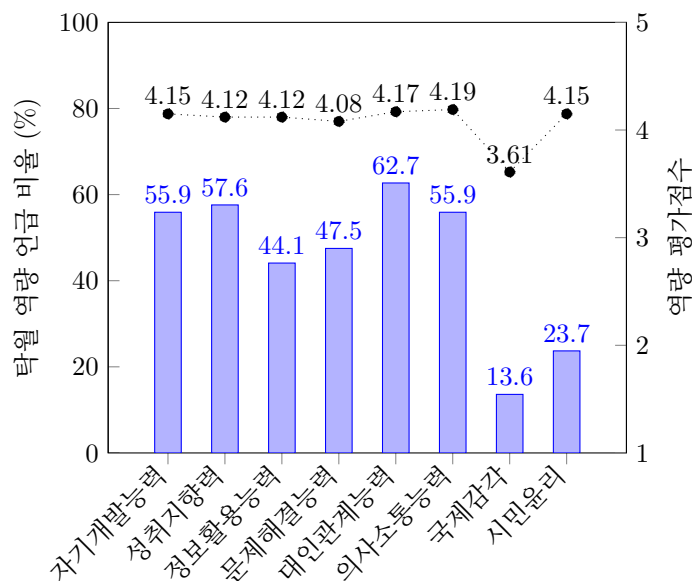
다만, 대학 이미지 평가에서 나타났던 것 처럼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5점 척도로 된 평가 점수의 점수자체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감각에 대해 대해 살펴보면, 평가점수 방식에서 52.5 %가 뛰어나다는 데 동의를 했고, 8.5 %만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숙명인이 탁월한 역량으로 국제감각을 언급한 경우는 13.6 %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역량이라도 언급한 비율이 39 %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가 점수에 점수 인플레이가 있을 가능성이 들어난다.

평가 점수의 또 다른 문제는 국제감각을 제외하고 7개 역량의 최대차이가 0.11이고 표준편차가 0.036로 작아 핵심역량의 차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3.2 숙명인의 역량수준

숙명인은 대인관계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기개발 능력과 성취지향력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편차가 나타난다. 문제 해결능력은 좀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핵심역량 중 국제감각에 대해서는 취약한 역량이라는 데 여러 측정방법이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보활용능력과 시민윤리는 관심사항이 아니라서 그런지 평가점수로만는 낮지 않은 점수를 나타내고, 부족한 역량으로 언급하는 비율도 높지 않지만, 뛰어난 역량으로 언급하는 비율도 낮은 편이다. 이 중 시민윤리 부분은 더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림 3.1〉 산업체가 본 숙명인 역량



탁월 역량 언급 기준으로 봤을 때, 대인관계능력이 62.7 %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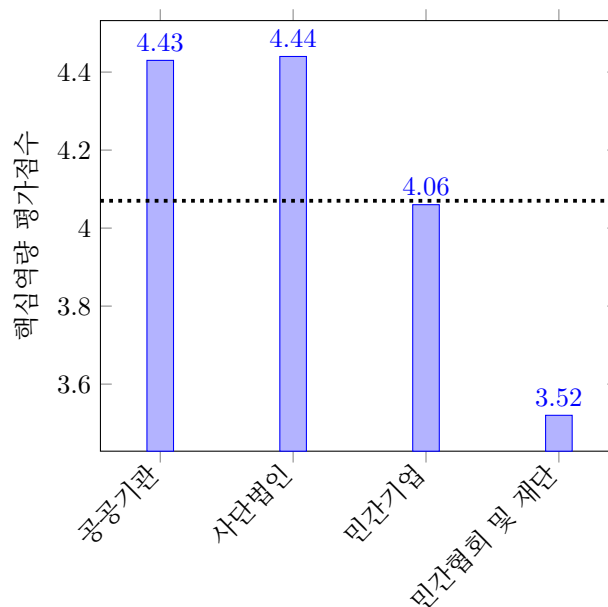
지향력과 의사소통력, 자기개발력이 이었다(57.6 %, 55.9 %, 54.2 %). 의사소통력과 자기개발능력은 부정적 평가도 적어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성취지향력의 경우 탁월역량 언급 비율에 비해 부족 역량 언급이 많고, 평가 점수도 낮아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제해결능력과 정보활용 능력은 중간 정도의 역량으로 평가되고 있다(47.5 %, 44.1 %).

국제감각은 최저의 탁월능력 언급(13.6 %)과 최고의 부족능력 언급(39.0 %) 그리고 최저 점수(3.61)를 기록해 외부(산업체 관계자)가 보기에 숙명인이 가장 부족한 역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3.2.1 부분별 역량 평가 차이

산업체의 특성 별로 숙명 재학생의 역량을 다르게 평가하는 지를 살펴봤다. 일단 업종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8개 세부 역량에 대한 평가도 산업체가 속한 업종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난 핵심역량은 하나도 없었다.

〈그림 3.2〉 운영형태별 역량 평가



운영형태별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공공기관과 사단법인의 핵심역량 전체에 대해 4.43점과 4.44점을 줘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 반면 민간협회와 재단은 3.52를 줘 재학생 역량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적인 목표설정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는 역량, 즉 성취지향력을 숙명여대 재학생이 갖췄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사단법인(4.5)과 공공기관(4.44)은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데 동의한 반면, 민간협회와 재단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3.17). 민간협회 및 재단이 핵심역량에 대한 평가가 평균적으로 박하기는 하지만 성취지향력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전체 조사 참가자 중 성취지향력에 대해 5점 평가에서 1,2에 해당하는 부정적 평가를 한 경우는 한 사례도 없고, 민간협회 소속 응답자 6명 중 평가

〈표 3.2〉 사업장 운영형태 역량 평가

역량	공공기관	민간기업	민간협회 및 재단	사단법인
자기개발능력	4.43	4.14	3.83	4.25
성취지향력 ***	4.43	4.17	3.17	4.50
정보활용능력 ***	4.86	4.07	3.50	4.25
문제해결능력 **	4.29	4.10	3.5	4.50
대인관계능력	4.43	4.14	3.67	4.75
의사소통능력 *	4.43	4.21	3.50	4.50
시민윤리 *	4.43	4.12	3.67	4.75
국제감각	4.14	3.52	3.33	4.00
업종 역량 평가	4.43	4.06	3.52	4.44

note:* p 0.1 미만, ** p 0.05 미만, *** p 0.01 미만

점수 중 최저점에 해당하는 3점을 무려 5명이나 부여했다. 민간협회 및 재단과의 협업과정
에 어떤 부정적 경험을 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정보활용 능력에 대해서 공공기관을 대표해 설문에 응한 참가자들은 매우 높게 평가하
고 있다. 4.86이라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협회(3.50)와
민간기업(4.07)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서는 공공기
관과 사단법인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민간협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사 소통이나
시민윤리에 대해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국제감각은 민간
협회도 부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참여자가 많은 민간기업도 3.52을 줘서 국제적 감각을 숙명
인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 부정적 평가를 한 5명중 민간기업 소속이 4명이나
된다. 유보적 입장을 보인 23인중에 민간 기업 소속이 19명이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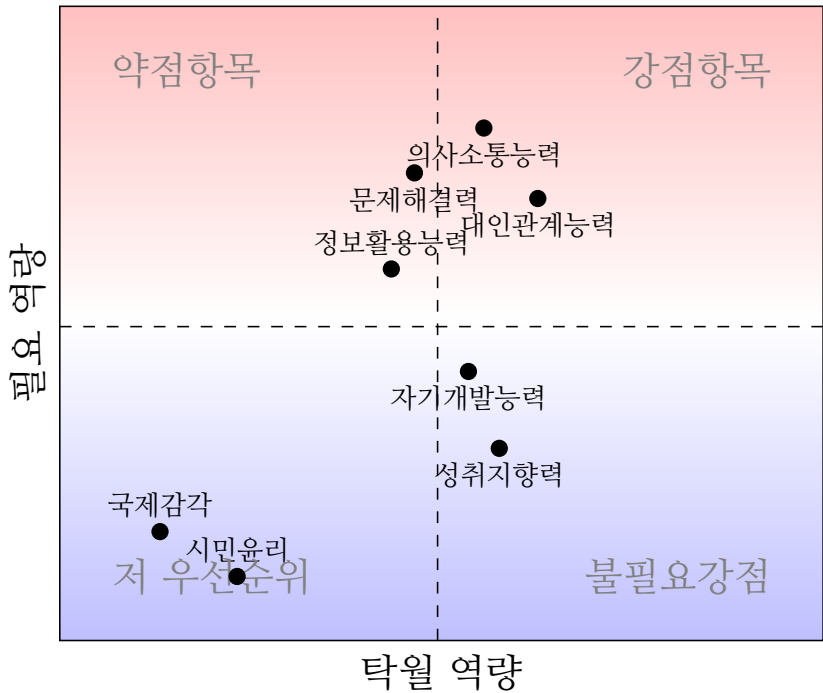
3.3 역량 평가와 필요 역량

숙명인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측정도구 검사 결과를 활용하거나, 관계자에
의한 평가에 기반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 같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와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의 주도하에 한국교육평가학회와 다수의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K.CESA)이나 숙명여대 역량진단 검사(SM.CLA) 같은 검사도구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숙명여대 자료의 접근이 어렵거나, 일부에 편중된 조사 결
과만이 있는 문제가 있다. 후자 (관계자 평가)는 학생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관계자들이 학
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IPP 실습기관이나 산학협력체의 경우 우리학교 재학생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입장이며, 외부자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어 최적의 조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도 숙대 재학생만 평가하기 때문에 역량의 순위는 적절히 평가되지만
평가 점수의 절대값의 적절성은 검토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응답자가 실제 평가보다 후하게
줘서 점수 인플레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단점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편이나 전략수립에
훌륭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료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도 중요한 자료다. 졸업생 조사를 통해 졸업생들이

사회진출시 필요한 역량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된다. 필요 역량과 역량 평가 자료를 활용하면 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역량 평가 자료중에 탁월 역량 언급 비율을 활용한다. 졸업생 조사에서 사회진출시 필요 역량을 조사한 방식과 조사 방식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그림 3.3〉 탁월역량과 필요역량



IPA 분석을 원용해서 전략을 분석해 보았다. 만족도 대신에 탁월역량을 넣고, 중요도 대신에 필요역량을 넣었다. 탁월 역량은 재학생이 갖추고 있는 역량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필요역량은 졸업생들에게 사회진출을 위해 중요했던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 묻는 의미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중요도-만족도 분석에서 만족도가 높으면서 중요한 것은 강점 항목으로 유지가 필요한 항목이다. 우리의 탁월-필요역량 비교에서는 탁월한 역량이면서 사회진출시 꼭 필요한 핵심 역량이다. 유지가 필요한 강점 역량에는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속한다. IPA에서 만족도가 높지만 중요도가 떨어지는 항목은 불필요 강점항목으로 우리 분석에서 탁월하다고 평가 받는 역량이지만 사회진출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핵심역량이다. 여기에는 자기개발능력과 성취지향력이 해당된다.

긴급하게 개선해야할 약점항목은 반듯이 필요한 항목인데 재학생들이 덜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항목이다. 문제해결능력과 정보활용능력이 여기에 해당된다. 약점 항목으로 분류되지만 약간의 역량증진 노력으로 강점 항목이 될 수 있는 핵심역량이다. 필요성도 떨어지고 숙명인이 갖추지 못한 역량은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만 당장 급하게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국제감각이다. 시민윤리도 장기적 발전과제에

해당될 수 있지만, 다른 측정방식에서는 탁월한 역량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항목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필요 강점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는 없다.



교육과정과 운영, 학생지도에 대한 자유의견

산업체 조사의 자유의견은 다른 조사와 달리 한 두 가지 의견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 즉 조직문화를 이해시키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에서 부터 통섭, 융합이 강조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기본 학문에 충실한 커리큘럼 운영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조언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창업지원에 대한 전문교육 및 매칭을 요구하기도 하고, 여대이므로 문화예술 특성화 교육의 심화와 발전적 예술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변화의 시대를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감수성, 상상력, 도전정신을 함양시켜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제 4 장

결론 및 제언

산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대학의 목표와 재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평가하고, 학교의 대외 이미지와 발전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우리학교가 설정하고 있는 4대 목표중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직업인 양성에 대해서는 절대적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71). 비슷하게 교양과 품격을 갖춘 문화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4.42). 조사에 응한 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 및 업무능력이라 측면에서 여성지도자 배출과 민주시민 양성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편적 민주 시민개념과 다른 구시대적 민주시민의 양성이 목표로 제시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산업체가 본 우리대학의 이미지와 발전 가능성은 전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발전 가능한 대학(4.22), 인성을 함양하는 대학(4.17) 등에 대해 많은 동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교과과정이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이라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80). 조사 대상이 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간의 점수 인플레이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산업체로 하여금 여러가지 방법으로 재학생의 핵심역량을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인관계능력과 성취지향력, 의사소통력, 자기 개발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해결능력과 정보활용능력은 중간정도를 평가를 받았다. 국제감각은 숙명인이 부족한 역량인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졸업생 조사의 필요역량 조사를 결합해 IPA분석 결과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은 강점항목으로 지속적은 유지가 필요하고, 문제해결능력과 정보활용능력은 조금 부족한 능력인데 시급해 향상시켜 강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다. 자기개발능력과 성취지향력은 충분히 강하지만 그렇게 필요한 능력이 아닌 관계로 이 역량에 대한 집중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감각(과 시민윤리)는 부족하지만 필요성도 떨어져 장기적으로 개선할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설문지

2017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산업체 대상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학은 “지·덕·체를 갖춘 미래형 글로벌 인재”라는 인재상 실현을 통해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의 질적 발전과 개선을 도모하고자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산업현장의 시의적절한 요구사항을 분석, 수용한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운영방안 수립목적으로만 제한 사용될 예정이며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소중한 의견은 우리대학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하게 이용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할애하셔서 답변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17년 11월

숙명여자대학교 평가실

본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주시길 바랍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기획처 평가실 (02-2077-7539)

[1-4] 귀 기관의 기본 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귀 기관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①서울 ②인천/경기도 ③대전/세종/충청도 ④광주/전라도
⑤부산/대구/울산/경상도 ⑥강원도/제주도

2. 귀 기관의 기본업종은 무엇입니까?

- ①제조업 ②금융업 ③유통업 ④건설업
⑤정보통신업 ⑥서비스업 ⑦기타()

3. 귀 기관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50인 미만 ②50~100인미만 ③100~200인 미만 ④200~300인 미만
⑤300인 이상

4. 귀 기관의 운영 형태는 어느 것입니까?

- ①정부기관 ②공공기관 ③민간기업 ④민간협회 및 재단
⑤그 외()

[5-8] 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및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 숙명여대 4가지 교육 목표의 중요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교육목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도	매우 중요하다
5. 품격과 교양을 갖춘 문화인 양성			
6.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직업인 육성			
7.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민주시민 양성			
8.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 갈 여성지도자 배출			

[9-13] 숙명여대에 대한 대외이미지와 발전가능성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대외이미지와 발전가능성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9. 주위의 평판이 우수한 대학이다		
10. 학생의 인성과 태도 함양에 노력하는 대학이다		
11. 교육과정이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이다		
12.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이다		
13.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학이다		

[14-24] 숙명여대 재학생의 역량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숙명여자대학교 역량			
①자기개발능력	②성취지향력	③정보활용능력	④문제해결력
⑤대인관계능력	⑥의사소통능력	⑦시민윤리	⑧국제감각
숙명여자대학교 재학생 역량 평가			전혀 뛰어나지 않다 ↔ 매우 뛰어나다
14. 자기개발능력 (진로를 설계·성취하기 위해 지식,기술,태도 등을 점검,관리,개발하는 역량)			
15. 성취지향력 (도전적인 목표설정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는 역량)			
16. 정보활용능력 (상황을 분석한 후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가공, 활용하는 능력)			
17. 문제해결력 (문제원인을 진단하고 활용가능한 자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18. 대인관계능력 (조직을 이해하고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능력)			
19. 의사소통능력 (주어진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20. 시민윤리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봉사, 책임지는 행동, 규칙을 준수하는 능력)			
21. 국제감각 (세계 흐름을 파악하며 조직과 자신의 능동적 좌표설정 능력)			
22. 숙명여대 재학생의 '탁월한' 역량을 상단 번호를 참조하여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23. 숙명여대 재학생의 '부족한' 역량을 상단 번호를 참조하여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24] 숙명여대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도 등에 제안하실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숙명여대에서는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선물 증정을 위한 개인정보를 기재해 주시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동의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

※ 본인은 숙명여자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기프티콘 발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기프티콘 발송 후 즉시 폐기
- 미동의시 선물 발송이 불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